

“동반자 관계로 ESCO 발전에 동참”

■ 박정미 기자 psn0304@yahoo.co.kr



▶ 진승원 대표

지난 2006년 4월 11일 ESCO로 등록된 (주)연합진흥(대표 진승원)은 전북 완주군 임실면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1984년 전기공사업으로 창업해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현재 전기공사업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공사업, 전문소방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에 이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도 이름을 올렸다.

ISO 9001, 소프트웨어사업자, KT협력업체(정보통신공사분야), 한국수자원공사 수리업체, 한국주택공사 협력업체, 한국전력 협력업체라는 타이틀도 (주)연합진흥이 꾸준히 성장해온 발판이다.

국내외 에너지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ESCO와 신재생전문기업에 등록했다는 연합진흥은 현재 오는 12월 완공할 예정인 전북 완주군 120kW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전기부문을 맡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다음은 진승원 대표와의 1문 1답이다.

1. ESCO사업을 하게 된 배경

그동안 저희는 전기공사업을 해오면서 에너지절약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ESCO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여건을 볼 때 아주 잘 맞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ESCO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주력할 품목은?

아직은 준비단계이며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생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사업 세미나, ESCO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여 자료도 수집하고 많은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3. ESCO사업에 있어 연합진흥의 경쟁력은?

지금은 경쟁력보다는 국산제품의 경쟁력 강화, 국산제품의 생산원가 절감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4. ESCO사업을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은?

사업자금 조달과 투자비 대비 손익 분기점이 아직은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개발과 지원으로 사업여건이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